

농어촌공 지원 농기자재 기업, 베트남·호주 시장 공략

현지 농업박람회 '한국관' 운영
1천34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86만 달러 수출협약·계약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농업박람회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K-농기자재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K-농기자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과 호주 농업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총 1천34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86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농업박람회(Horti&Agri Vietnam 2026)와 6월 2일부터 4일까지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박람회(Hort Connections 2026)에서 국내 농기자재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다. 각 박람회에 국내 농기자재 기업 10개 사가 참

여해 시설자재, 비료, 사료, 친환경 농자재 등 국내 우수 농기자재 제품을 선보였다. 베트남 박람회에서는 현지 수입업체, 유통기업, 농업 관계자들과 7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수출협약 2건(21만 달러), 합의각서 1건(10만 달러), 수출계약 1건(30만 달러) 등 총 61만 달러 규모의 성과를 거뒀다. 호주 박람회에서는 현지 구매기업과 187건, 55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하고, 25만 달러 규

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참가기업들은 호주 현지 시장을 파악하고,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등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성과는 케이(K)-농기자재의 품질 경쟁력에 농식품부와 공사의 수출 지원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사는 국내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박람회 전부터 현지 시장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박람회 기간에는 현지 구매기업과 국내 참가기업 간 상담을 주선하고, 기업 간 교류 자리를 마련했다. 공사는 향후 상담 결과를 점검하고, 후속 협의를 지원하는 등 수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박미란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기술처장은 "공사는 우수한 제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국제 농기자재 시장에서 판로를 넓히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시장 정보 제공부터 상담 주선, 사후 수출 지원까지 단계별로 뒷받침해 케이(K)-농기자재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임재만 기자

“다각적 프로그램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포럼' 개최
지역 도전자·창업자 등 참석 뜨거운 관심



이와 김충만 (주)스테이션제이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창업 경험과 경영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모두의 창업' 2기 사업 소개와 기술분야별 1:1 상담부스를 통해 지역 도전자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9일 "전날 센터 내 스테이지 2층 다목적홀에서 지역 도전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모두의 창업 인사이트 강연 X 광주창업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모두의 창업'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지역 도전자와 (예비)창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선배 창업자들의 경험 공유와 기업가 정신 강연을 통해 실질적인 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추진 예정인 '모두의 창업' 2기 사업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선관 (주)고스트페이스 대표

예비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했다. '모두의 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 참여형 창업 프로젝트다. 지난 1기 모집에서는 전국 기술분야 기준 5만 1천 90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된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도 1천 748건이 접수되며 창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창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지역의 우수한 창업 인재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두의 창업' 2기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참가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1기 대비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재도전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견기업, 투자기관(VC) 등 운영기관의 참여를 늘리고 신청 대상도 완화해, 더 많은 창업 도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샌드쿠키 '버터앤젤터'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9일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서울 연남동의 인기 디저트 브랜드 '버터앤젤터' 팝업스토어를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버터앤젤터는 감각적인 비주얼과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디저트로 젊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연남동 대표 디저트 맛점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다. 특히 대표 메뉴인 버터샌드는 부드럽고 바삭한 쿠키 사이에 버터앤젤터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쫄쫄한 카라멜과 프랑스산 프리미엄 이즈니 고메버터를 듬뿍 넣어 진한 풍미와 달콤한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팝업 행사에서는 오리지널 버터샌드를 비롯해 초코 버터샌드, 글라스메 버터샌드, 크림브레드 버터샌드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유명 디저트 브랜드를 지역 고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팝업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금감원, 23일 광주서 상법 개정 후 첫 '기업공시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광주와 24일 대전에서 각

각 개최된다. 이어 올해 3분기에는 부산·대구, 4분기에는 서울·광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상법 내용이 경영 현장과 공시 업무에 반영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주요 공시제도 변경 사항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

와 미공개정보 이용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도 다룬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함께 매년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

